대학, 교육개혁 그리고 서태지

황 경 식
숭실고 교사, 연구실장

해마다 연말이면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대학과 대학입시라는 말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고등학교 교육의 잘잘못은 모두 대학과 연관을 짓게 된다. 이른바 명문 학교란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나타냈기 때문이요, 한 해 동안의 교육 활동의 성과도 그 해의 대학입시 결과로 평가하려 한다. 특히 지난 일년간 여러 차례 화제의 논란이 된 교육개혁의 실체도 대학입시와 분리해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학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걸까? 四書의 한 권인 『大學』의 첫 구절은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到善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를 나름대로 풀이하면 大學이란 밝은 덕, 즉 진리를 깨우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다 이상적인 세계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큰 배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오늘날의 대학이 이같은 사명에 충실하다면, 대학입시의 과열은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땅에 수많은 대학들이 있고 하늘 아래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명망 높은 대학들도 한둘이 아니건만 우리 주변의 현실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어떤 재벌의 터무니없는 부도 사태라든가 얼마 전, 아니 현재까지도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노동법 사태 같은 것을 바라보면 앞서 언급한 大學之道는 참으로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격이다. 마치 맹목의 블랙 홀처럼 우리의 대학들은 해마다 천하의 영재들을 받아들이기만 했을 뿐, 명덕(明德)도 친민(親民)도 아득한 옛 선인들의 몽상인 것 같다.

교육개혁이란 말이 나온 궁극적인 원인도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게 많은 노력과 심한 경쟁을 치르면서 들어간 대학이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어긋나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육개혁 과정을 살펴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본질의 개혁보다는 늘 형식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즉, 대학은 무엇 하는 곳이며 어떻게 운영되어

야 하기에 이러이러한 인물을 선발하는 곳이 아니라,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으로 치부되어져 왔다. 대학은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마법의 성이요, 학생들은 그 마법의 티켓을 쟁취하는 전사라는 심리를 잔뜩 심어 놓고, 다만 그 쟁취하는 방법만은 이런 저런 룰에 따라야 한다고 묘안을 연구 제기하는 셈이다. 따라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학에 들어가려는 욕구는 결코 불식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정서가 살아 있는 한, 끊임없이 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의 삶이며, 오히려 졸업한 이후라는 사실을 왜 우리 대학만이라도 강조해주지 않을까? 어쩌면 손님이 끊겨질까봐 두려워하는 부도덕한 상인의 심보를 숨긴 것은 아닐런지?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은 차라리 서태지에게 기대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비틀즈의 등장이 20세기 문명의 한 특색이었듯이 서태지의 출현은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의 의식에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왔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가치관의 변화, 즉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그리고 그 성공의 길은 놀랍게도 대학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모든 성공은 대학으로부터'가 불변의 진리요 건드릴 수 없는 터부였다. 그런데 이제 그 터부가 무너지고 있다. 대학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지만 자기들이 입고 싶은 옷을 입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면서도 성공을 이룬 녀석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놀랄 만큼 눈부신 성공을. 마침내 서태지는 청소년들에게 살아 있는 전설이요 신화이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다.

그리하여 아이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대학에 집착하지 않는다. 물론 아직까지는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모들의 강요에 마지못해 대부분 따라가고 있지만, 그 변화는 해가 다르게 점점 뚜렷해진다. 세상은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빨리 변화해 가는데 미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따름이다. 이제 조만간 우리 교육계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도래할 것이다. 어쩌면 대학이 학생들을 찾아다닐 때가 올지도 모른다. 진정한 교육개혁은 거기서 비로소 시작되리라. 고등학생을 유치하고자 애를 쓰는 대학들, 중학생에게 미소를 보내는 고등학교들, 우리의 교육 체계가 이런 식으로 변화된다면 교육 내용의 질적 향상과 국가 경쟁력 확보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기 전에 대학은 필요 없어, 하고 과감하게 외치는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면 그 변화는 보다 빨리 다가오리라.

황경식/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숭실고 교사로 재직중이며, 연구실장을 맡고 있다.